

한국산 파충류의 현황과 분포

송 재 영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Current Status and Distribution of Reptiles in the Republic of Korea

Jae-Young Song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Namwon 590-811, Korea

Abstract –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current status and distribution of reptiles currently inhabiting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ults of survey data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reptiles were distributed into two orders, seven families, and 21 species, with the exception of six marine reptiles, including *Dermochelys coriacea schlegelii*, *Chelonia mydas japonica*, *Caretta caretta*, *Hydrophis melanocephalus*, *Hydrophis cyanocinctus*, and *Pelamis platrrus*. Also, the taxonomic revisions of several species were suggested, although this would be ill-advised before further studies can be conducted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reptiles in the region.

Key words : reptile, current status, distribution

서 론

우리나라의 파충류 현황은 Strauch(1873)에 의해 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이후 Stejneger(1907), Slevin(1925), Shannon(1956)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파충류 서식현황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원(1971), 강과 윤(1975)에 의해 우리나라 파충류의 전반적인 현황 및 생태에 대하여 소개되었으며, 뱀류에 대한 계통분류, 형태 연구 및 유전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백 1982; Paik *et al.* 1990, 1992). 최근 들어, 장 등(2006a, b)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장지뱀 및 도마뱀류에 대한 현황 및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김과 오(2005)에 의하여 멸종위기종인 비바리뱀의 분포, 서식

현황 등 기초적인 생태현황이 파악되었다.

한편, 환경부에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육상을 206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파충류상을 조사하였으며 2006년 이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파충류 동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2006).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매년 2개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파충류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각종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선임연구자들의 노력에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파충류 연구는 매우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1950년대 이후 약 50년 동안 우리나라 파충류의 분포 현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분류학적으로 고찰이 이루어진 종과 미기록종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 Corresponding author: Jae-Young Song, Tel. 063-625-7654, Fax. 063-625-7657, E-mail. song@seoul.korea.com

수행하고 있는 파충류 현황조사 및 연구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현황을 파악하고 분포도를 작성하는 한편, 분류학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부 종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분류학적 위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수행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년~2005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행한 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2002년~현재), 연구자에 의한 결과(1997년~2006년)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포도 작성을 위해 GIS 프로그램인 Geomedia 5.1 professional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조사방법 중 자료의 신뢰성을 위하여 직접 관찰된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문조사 결과는 모두 제외하였다.

결 과

1. 한국산 파충류 목록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해양 파충류(장수거북 *Dermochelys coriacea schlegelii*, 바다거북 *Chelonia mydas japonica*, 붉은바다거북 *Caretta caretta*, 먹대가리바다뱀 *Hydrophis melanocephalus*, 얼룩무늬바다뱀 *Hydrophis cyanocinctus*, 바다뱀 *Pelamis platurrus*) 6종을 제외한 육상 파충류는 총 2목 7과 21종(아종포함)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2. 우리나라 파충류 검색표

우리나라 파충류에 대한 검색표는 원(1971), 강과 윤(1975), Szyndlar and O(1987), 장 등(2006b)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최근에 신종(new species) 발표 및 분류학적 고찰 등을 통해 일부 종이 정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 결과를 참고로 검색표를 재 작성하였다.

1) 거북류 검색표

- (1) 네다리는 비늘 모양이거나 지느러미 모양이고, 발가락이 뚜렷하다. 해산(海産)이다.(2)
- (1a) 네다리는 비늘 모양이거나 지느러미 모양이 아니고 발가락이 뚜렷하다. 담수산 혹은 육서이다.(3)
- (2) 몸의 표면은 발달된 대형의 비늘판으로 덮혀 있고, 몸통은 단단한 갑에 싸여 있다. 1~2개의 발톱이 있다. Cheloniidae

Table 1. List of reptiles inhabiting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marine species)

Order	Family	Scientific name	Remark
Testrdinata	Trionychidae	<i>Pelodiscus sinensis</i>	
	Emydidae	<i>Chinemys reevesii</i>	EN II
		<i>Trachemys scripta elegans</i>	
Gekkonidae	Gekkonidae	<i>Gekko japonicus</i>	
	Scincidae	<i>Scincella vandenburghi</i>	
		<i>Scincella huanrensis</i>	
Lacertilidae	Lacertilidae	<i>Takydromus amurensis</i>	
		<i>Takydromus wolteri</i>	
		<i>Eremias argus</i>	EN II
Squamata	Colubridae	<i>Elaphe rufodorsata</i>	
		<i>Elaphe dione</i>	
		<i>Rhabdophis t. tigrinus</i>	
		<i>Dinodon r. rufozonatum</i>	
		<i>Coluber spinalis</i>	
		<i>Elaphe s. schrenckii</i>	EN I
		<i>Elaphe s. anomala</i>	EN I
		<i>Amphiesma v. ruthveni</i>	
		<i>Sibynophis chinensis</i>	EN II
		Viperidae	Viperidae
<i>Gloydus ussuriensis</i>			
<i>Gloydus saxatilis</i>			

※ EN I or II, Endangered species I or II

- (2a) 몸의 표면은 부드러운 피부로 되어 있거나 다수의 가는 비늘로 덮여 있고, 성체에서는 등갑에 7개의 두렷한 용기선을 갖고 있다. 발톱이 없다. Demochelyidae
- (3) 갑은 단단하고, 발달된 대형의 비늘판으로 덮여 있다. 발톱은 원칙적으로 4~5개이다(4)
- (3a) 갑은 부드러운 피부로 덮여 있다. 발톱은 3개이다. *P. sinensis*
- (4) 갑에 3개의 발달된 용기선이 있으며, 머리 측면에 노란색의 선이 있다. *C. reevesii*
- (4a) 갑에 3개의 발달된 용기선이 없으며, 머리 측면에 붉은색의 선이 있다. *T. s. elegans*
- 2) 도마뱀류 검색표
 - (1) 머리판에서 크고 체계적인 비늘판이 없고 부드러운 허를 가지고 있으며, 발바닥에 잘 발달된 흡판을 가지고 있다. *G. japonicus*
 - (1a) 머리판은 크고 체계적인 비늘판이 존재한다.(2)
 - (2) 배비늘은 대체로 육각형모양이며, 몸통에 용골이 존재하지 않고, 서혜인공이 없다.(3)
 - (2a) 대부분 사각형의 비늘을 가지며, 몸통에 용골이 존재하고, 서혜인공이 있다.(4)
 - (3) 몸통측면의 선이 물결모양이며, 가운데 등비늘이 확장되어 있다. *S. vandenburghi*

- (3a) 몸통 측면의 선이 거의 일직선이며, 가운데 등비늘이 약간 확장되어 있다. *S. huanrenensis*
- (4) 과립모양의 등비늘을 가지고 있으며, 배비늘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또한 대퇴부에는 11~12쌍의 서혜인공이 있다. *E. argus*
- (4a) 등비늘에는 강한 용골이 존재하나 과립모양의 등비늘은 아니다. 또한, 서혜부에 서혜인공이 있다 (5)
- (5) 주둥이끝판과 윗코판 비늘이 붙어 있으며, 3 또는 4쌍의 서혜인공이 존재한다. *T. amurensis*
- (5a) 주둥이판과 머리판 비늘이 떨어져 있으며, 1쌍의 서혜인공이 존재한다. *T. wolteri*
- 3) 뱀류 검색표
- (1) 바다에 서식하고, 배비늘은 작으며, 꼬리의 측면은 납작한 편이다. Hydrophiidae
- (1a) 육상에 서식하며, 배비늘은 넓고, 꼬리는 둥근 편이다. (2)
- (2) 주둥이 앞부분에 독니를 가지고 있으며, 머리 앞쪽에 9개의 커다란 머리판을 가지고 있다. (3)
- (2a) 주둥이 앞부분에 독니를 가지고 있지 않다. (5)
- (3) 등비늘은 23줄이며, 뺨 부분에 밝은 선이 없으며, 몸에 어두운 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다. *G. saxatilis*
- (3a) 등비늘은 21줄이고, 잘 발달된 회색의 선이 뺨 부분에 있다. 몸의 형태는 위와 같지 않다. (4)
- (4) 몸에 어두운 반문들이 있는데, 주로 양쪽 또는 반대 방향으로 밝은 색의 동그라미 모양이 있으며, 혀의 색은 검은색이고, 꼬리의 끝은 밝은 색이다. *G. brevicaudus*
- (4a) 몸통은 어두운 갈색 이거나 검은 빛이며, 밝은 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고, 혀 색은 붉은색이다. 꼬리의 끝은 어두운 색이다. *G. ussuriensis*
- (5) 등비늘 열은 19줄이거나 그보다 적다. (6)
- (5a) 등비늘 열은 21줄이거나 그 이상이다. (10)
- (6) 부드러운 비늘을 가지며, 주로 17줄의 비늘이 있다. (7)
- (6a) 등비늘 열은 19줄이며, 강한 용골을 가지고 있다. (9)
- (7) 배비늘은 184개보다 적으며, 몸통색은 거의 전체가 회갈색이다. *S. chinensis*
- (7a) 배비늘은 183개 이상이며, 몸통 색은 위와 같지 않다. (8)
- (8) 항문판은 나누어져 있으며, 꼬리비늘 수는 76개보다 많다. 등 부분은 봄 길이 방향으로 노란색의 선이 있다. *C. spinalis*
- (8a) 항문판은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꼬리비늘 수는 79

- 개 보다 적다, 등에는 붉거나 오렌지 빛의 가로줄 무늬가 있는 검은색이다. *D. r. rufozonatum*
- (9) 약한 용골이 있으며, 배비늘은 155개 보다 적고, 등 부분은 갈색이며, 배 측면은 약한 점무늬가 있다. *A. v. ruthveni*
- (9a) 강한 용골, 152개 이상의 배비늘, 등부분은 녹색이며, 머리 뒤쪽에 검고 붉은 점이 있으며, 배측면은 검은색이다. *R. t. tigrinus*
- (10) 용골이 없다. (11)
- (10a) 강한 용골, 배비늘은 210개 이상, 등비늘은 23줄이고, 배비늘은 228개보다 적고, 꼬리비늘 수는 77쌍보다 적고, 꼬리에 가로 줄무늬가 존재한다. (12)
- (11) 등비늘은 21줄이며, 배비늘은 188개 보다 적고, 등 부분은 검은 점들이 있는 갈색이고, 배부분은 검거나 붉은 색의 사각형 모양의 점이 있다. *E. rufodorsata*
- (11a) 등비늘은 주로 25줄이며, 배비늘은 180개 이상, 등 부분은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교차하는 회색이며, 배부분은 불규칙하고 희미한 점을 가진다. *E. dione*
- (12) 앞쪽에 좁은 흰색의 띠와 뒤쪽에 노란색의 띠를 가지며 몸통은 검은색이다. *E. s. schrenckii*
- (12a) 성체는 어두운 띠가 있고 갈색이며, 앞쪽은 불분명하지만 뒤쪽은 확실히 구별된다. *E. s. anomala*

3. 우리나라 파충류 현황 및 분포

1) *Pelodiscus sinensis* (Wiegmann 1834) 자라
 생태: 낮에는 주로 물속 깊이 어두운 곳에 살고 밤에 나와 먹이는 잡아먹는다. 식성은 주로 육식성이다. 낮에 따뜻할 때 물위로 올라와서 바위나 모래에 있다가 주위의 어떤 작은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 산란기는 5월말에서 8월이며, 산란장소는 습기가 다소 있는 곳이 좋아하며, 산란회수는 3~5회로 나누어 하는데, 1회 산란하는 기간은 2~3주간 간격이고, 1회의 산란수는 보통 15~50개 정도이다. 알은 탁구공과 같이 둥글고 직경 2cm, 중량 약 5g 정도이며, 부화 기간은 약 45~50일 정도이다(국립수산진흥원 1998).
 서식지: 강의 중상류 소, 호소, 하천 등(원 1971).
 분포현황: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분포지역: 내장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금산, 금오산, 만덕산, 방어산, 불모산, 삼방산, 영취산, 운악산, 작대산, 집현산, 황아산 등

2) *Chinemys reevesii* (Gray 1831) 남생이

생태: 늪, 못 등에서 생활하며, 양서류나 어류 등을 먹으며 생활하다. 포식자를 만나면 머리와 네다리, 꼬리를 잡아 안으로 넣은 후, 포식자가 사라지면 다시 머리와 네다리를 내밀고 활동한다. 지역에 따라 번식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으나 6월부터 8월 사이에 모래 위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묻는다. 한 배에 3~9개의 알을 산란하며, 알은 타원형이고 흰색이다. 10월 정도가 되면 동면에 들어가 이듬해 봄까지 지속된다(원 1971; 심 2001).

서식지: 하천, 호수, 늪, 연못 등

분포현황: 전국의 크고 작은 하천에서 서식하나, 최근 환경오염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조사한 결과 내장산, 덕유산 등 10여 개 지역에서 서만 관찰되고 있다.

분포지역: 내장산국립공원, 방어산, 불모산, 삼방산, 연화산, 작대산, 집현산 등

3) *Trachemys scripta elegans* (Wied 1839) 붉은귀거북

생태: 낮 동안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호수나 연못 가운데에 있는 바위, 통나무 등에 모여 일광욕을 하며, 작은 어류, 수서곤충, 수초 등을 먹는다. 알은 주변 모래 틈이나 연한 토양을 파고, 그 속에 낳는다.

서식지: 하천, 호수, 연못, 웅덩이 등

분포현황: 미국 미시시피 지역이 주 서식지이지만 애완용으로 보급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분포지역: 계룡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검단산, 금산, 금오산, 금정산, 단석산, 두봉산, 방어산, 보배산, 봉황산, 불모산, 삼방산, 속리산, 수리산, 신불산, 연화산, 영취산, 운악산, 운주산, 작대산, 천마산, 천운산, 천제봉, 청화산, 토함산 등

4) *Gekko japonicus* (Duméril et Bibron 1836) 도마뱀부치

생태: 도마뱀부치과의 파충류는 대부분이 수상생활, 야행성의 것이 많고 도마뱀아목 중에서 퇴화적인 형태를 가진 독특하게 진화한 무리로서 식충성이며, 원래는 삼림성이었으나 인가의 불빛에 모여드는 곤충을 잡아먹기 위하여 서식장소를 옮겨 지금은 인간과 함께 사는 파충류가 되었다고 한다. 번식은 돌담 구멍이나 판자로 된 담벽의 판자 뒷면, 천정사이, 나무구멍(樹洞) 등에 산란한다. 산란은 7월이며, 벽에 단단히 붙여서 산란하고 알의 크기는 15 mm × 10 mm 정도이다. 또한 알의 색은 순백색이며 조금 길쭉한 계란모양이었다(이 등 1999).

서식지: 돌담, 건물 내·외벽, 나무 기둥 등

분포현황: 1907년과 1936년에 관찰된 기록이 있으며 부산시 일대에서 주로 관찰된다(원 1971; 이 등 1999).

분포지역: 가야동, 감천동, 광안동, 대연동, 대청동, 망미

동, 부평동, 서대신동, 아미동, 충무동, 토성동, 화명동 등

5) *Scincella vandenburghi* (Schmidt 1927) 미끈도마뱀

생태: 습기가 많고 어두운 지역에서 서식하며, 주로 통나무 밑이나 낙엽 밑에 숨어 지내다가 밤에 많이 활동을 한다. 먹이는 작은 육상곤충류를 먹고 살며, 7~8월경에 알을 낳는다.

서식지: 산림

분포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백두대간을 따라 산림 지역에서 관찰된다.

분포지역: 내장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가지산, 가학산, 감악봉, 금산, 금오산, 노고단, 달마산, 대룡산, 대봉산, 도고산, 도솔봉, 만대산, 명선봉, 바위산, 반야봉, 방어산, 백련산, 백룡산, 백마산, 백병산, 백운산, 병풍산, 불모산, 불대산, 사갓봉, 삼방산, 상두산, 상황봉, 석고산, 성널오름, 소학산, 시오름, 신어산, 아구산, 어승생악, 여귀산, 여분산, 여항산, 연화산, 오도산, 오음산, 옥산, 운암산, 운악산, 웅석봉, 원동리, 원효산, 유학산, 응봉산, 의상봉, 인덕산, 일성산, 작대산, 작약산, 장재산, 적자봉, 정명산, 정족산, 계암산, 종계산, 종석대, 주작산, 죽림산, 지력산, 차일봉, 천왕봉, 천제봉, 천축산, 추월산, 치악산, 화학산 등

6) *Scincella huanrenensis* Zhao et Huang 1982 북도마뱀

생태: 작은 육상곤충류를 먹으며 생활하고 낮에는 어둡고 습한 지역의 돌 밑이나 나뭇잎 밑에서 발견되며, 난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생태정보는 없는 실정이다(Zhao et al. 1999)

서식지: 산림

분포현황: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다(장 등 2006b).

분포지역: 오대산국립공원, 방태산, 대성산 등

7) *Takydromus amurensis* (Peters 1881) 아무르장지뱀

생태: 주요 작은 육상곤충류 등을 포식하며 생활을 하고, 낮고 양지 바른 곳으로 나와 활동한다. 특히 등산로, 도로 주변 그리고 쪼레, 칩과 같은 넝쿨이 많은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며, 사람이나 포식자가 나타나면, 넝쿨 속이나 돌 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다. 일반적으로 5~6월경에 암컷의 몸속에 있는 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란은 7월경에 하며,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돌 밑에 4~5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알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흰색이고 알 껍질이 단단하지 않은 편이다. 알의 크기는 약 10 mm × 5 mm 정도이다.

서식지: 산림지역

분포현황: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한다.

분포지역: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가리산, 가지산, 갈라산, 갑악봉, 갑산, 계당산, 곰봉, 구룡산, 국수봉, 금산, 금오산, 금학산, 기대산, 기룡산, 남태봉, 노고단, 달마봉, 달마산, 대덕봉, 대룡산, 대바위, 대산, 대운산, 대청봉, 도명산, 두봉산, 두봉산, 만대산, 망경대산, 명선봉, 목방산, 문수산, 미송산, 바위산, 반야봉, 방어산, 백덕산, 백룡산, 백명산, 백암산, 백우산, 백운산, 백운산, 존재산, 보혜산, 봉림산, 봉황산, 북한산, 비계산, 비룡산, 비봉산, 산지봉, 삼예봉, 삼태산, 상두산, 성주산, 소뿔산, 소학산, 속리산, 솟대봉, 쇠치봉, 수산리, 신선봉, 아구산, 영취산, 오도산, 오봉산, 오음산, 완택산, 왕두산, 운람산, 운악산, 울련산, 응석봉, 원효산, 월명산, 유학산, 응봉산, 의상봉, 일성산, 임원리, 입석산, 작대산, 장재산, 접산, 정족산, 제암산, 조항산, 종석대, 주산, 주왕산, 주작산, 죽림산, 집현산, 천운산, 천제봉, 천축산, 청옥산, 치악산, 칠갑산, 태백산, 태형산, 토곡산, 통고산, 향로산, 허굴산, 화학산, 황아산, 황철봉 등

8) *Takydromus wolteri* (Fischer 1885) 줄장지뱀

생태: 주로 4월부터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며, 5월경에 교미행동을 하고 6월부터 7, 8월까지 산란하는 개체가 관찰된다. 알은 초지의 덩굴 속, 흙바닥 또는 돌 틈에 낳고, 약 1 cm 미만으로 흙을 덮는 습성을 가진다. 알의 크기는 약 10 mm × 5~6 mm 정도이다. 보통 4~5 개의 알을 산란하고, 색은 흰색이다. 먹이는 거미류, 귀뚜라미 등 작은 육상곤충을 먹고, 낮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사람이나 포식자가 나타나면 수풀 속이나 몸을 숨길 수 있는 굴 등을 찾아서 숨는 경향이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부지역에서는 10월 중순이면 대부분의 개체가 땅 속의 굴을 찾아 동면에 들어간다.

서식지: 일반적으로 저지대 초지에서 서식하지만, 산림이 형성된 저지대에서도 관찰된다.

분포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분포지역: 덕유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가학산, 감봉산, 갑악봉, 계당산, 고현산, 구룡산, 국수봉, 금산, 금오산, 금정산, 기룡산, 노고단, 능화오름, 대마산, 대운산, 도명산, 마국산, 만대산, 무척산, 문수산, 반야봉, 백련산, 백명산, 보배산, 존재산, 봉황산, 북한산, 불모산, 사갓봉, 삼방산, 석고산, 소백산, 소학산, 쇠치봉, 승달산, 시오름, 신불산, 신선봉, 신어산, 아구산, 야월산, 어승생악, 영취산, 오도산, 옥산, 왕등재, 용두산, 용산봉, 운람산, 울련산, 유학산, 응방산, 응봉산, 이명산, 인덕산,

일성산, 입석산, 작대산, 작약산, 재안산, 적자봉, 정명산, 종지봉, 주왕산, 지력산, 천등산, 천마산, 첨찰산, 청화산, 치술령, 칠갑산, 풍악산, 황새봉, 황아산, 흰바우산 등

9) *Eremias argus* Peters 1869 표범장지뱀

생태: 5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하며 주로 모래사구에 많이 서식하지만, 모래사구뿐만 아니라 초지, 산림지역에서도 관찰된다. 알은 6~7월에 낳고 한번에 4~6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줄장지뱀이나 아무르장지뱀의 알보다 크며 약 12 mm × 8 mm 정도의 타원형이다. 작은 육상곤충이나 애벌레 등을 먹고 생활한다. 동면은 10월경부터 시작된다.

서식지: 초지, 모래사구, 경작지, 산림지역 등

분포현황: 영종도, 신두리 해안사구, 춘장대 해수욕장 등 서해안에 많이 분포하지만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일부지역에서 관찰된다.

분포지역: 태안해안국립공원, 미송산, 비계산, 운악산, 의상봉, 형제봉 등

10) *Elaphe rufodorsata* (Cantor 1842) 무자치

생태: 보통 4월에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며, 동면은 10월경에 시작한다. 주로 논두렁, 수로, 늪, 저수지 등에서 서식한다. 이러한 지역에 함께 서식하는 참개구리, 청개구리와 같은 개구리류를 잡아먹기도 하고, 논 주변에 서식하는 소형 설치류 등도 잡아먹는다. 교미는 5월경에 시작하며 8월경에 논, 밭, 야산 등에 11~14마리의 새끼는 낳는데 (강과 윤 1975; 백과 심 1999; 심 2001), 바로 새끼는 낳는 것이 아니고 알의 형태로 출산하지만, 알 속에서 개체가 완성되고, 산란 직후(1~2분 이내) 어린 개체가 난막을 뚫고 나온다(원 1971).

서식지: 저지대 논, 수로, 웅덩이, 저수지 등

분포현황: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분포지역: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가리산, 가계산, 가학산, 갑산, 개위산, 고현산, 곰봉, 광덕산, 구병산, 구절산, 국사봉, 금단산, 금산, 금성산, 금오산, 금정산, 기대산, 까치산, 남산, 남태봉, 노고단, 단석산, 달마봉, 달마산, 대덕봉, 대룡산, 대운산, 도고산, 도명산, 도솔봉, 동달산, 두봉산, 마산, 만대산, 명선봉, 무등산, 무봉산, 무계산, 무척산, 목방산, 미송산, 바위산, 박봉산, 방어산, 배재산, 백덕산, 백련산, 백마산, 백봉, 백암산, 백운산, 병풍산, 보혜산, 봉림산, 봉화산, 봉황산, 불모산, 비룡산, 산지봉, 삼태산, 상황봉, 설성산, 소학산, 송악산, 승봉산, 신불산, 신선봉, 신어산, 여항산, 연화산, 영인산, 영취산, 오도산, 오음산, 옥산, 왕두산, 왕등

재, 용두산, 용암봉, 운암산, 운악산, 응석봉, 월각산, 월명산, 유학산, 응방산, 응봉산, 의상봉, 이명산, 인덕산, 일성산, 입석산, 작대산, 작약산, 저굴산, 적자봉, 접산, 정리, 정병산, 존재산, 종계산, 종지봉, 주산, 주작산, 죽령산, 지력산, 집현산, 천등산, 천마산, 천제봉, 천축산, 첨찰산, 청옥산, 치술령, 칠갑산, 칠절봉, 칼봉산, 태백산, 태화산, 풍악산, 함라산, 허굴산, 황새봉, 황야산, 희리산 등

11) *Elaphe dione* (Pallas 1773) 누룩뱀

생태: 4월 중순부터 나타나며, 저지대 경작지부터 산림 지역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관찰된다. 주요 먹이는 개구리류, 소형 설치류, 새알 등을 먹으며 생활을 한다. 5~6월경에 교미를 하며, 7, 8월경에 6~15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50 mm × 20 mm 전후이며, 흰색이고, 중량은 8~14 g 정도이다. 동면은 다른 종에 비해 늦는 편이며, 11월에 동면을 한다 (Ji *et al.* 1987).

서식지: 경작지, 마을 주변, 산림 지역 등

분포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분포지역: 설악산, 북한산, 덕유산, 오대산, 계룡산, 오대산, 태안해안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장산, 지리산, 가리산, 가학산, 갈라산, 개위산, 계당산, 고대산, 곤방산, 광덕산, 구룡산, 구병산, 국사봉, 금단산, 금오산, 금정산, 기대산, 능화오름, 달마봉, 달마산, 대덕봉, 대봉산, 대산, 대청봉, 도고산, 도솔봉, 두리산, 두봉산, 마국산, 만대산, 만인산, 명선봉, 모후산, 무등산, 무척산, 묵방산, 문수산, 미송산, 바위산, 박봉산, 방어산, 백련산, 백룡산, 백병산, 백우산, 백운산, 병풍산, 보배산, 보혜산, 불모산, 불태산, 비계산, 비룡산, 삼방산, 삼예봉, 삼태산, 상두산, 상황봉, 성널오름, 성수산, 소백산, 송학산, 쇠치봉, 승달산, 승봉산, 시살등, 시오름, 신선봉, 신어산, 어승생악, 여귀산, 여분산, 여항산, 연화산, 영암산, 영인산, 영취산, 오음산, 옥너봉, 옥산, 왕두산, 왕등재, 용계산, 용두산, 운길산, 운암산, 운악산, 울련산, 웅산, 응석봉, 원효산, 월각산, 응봉산, 의상봉, 이명산, 인덕산, 일성산, 임원리, 입석산, 자산, 작대산, 작약산, 장군봉, 장재산, 저굴산, 적자봉, 접산, 정병산, 정죽산, 제암산, 조항산, 존재산, 주산, 주작산, 죽령산, 천등산, 천운산, 천제봉, 청옥산, 청화산, 주월산, 칠갑산, 칠보산, 태백산, 화학산, 황새봉, 황야산, 황철봉, 희양산 등

12)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Boie 1826) 유혈목이

생태: 주로 4~5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하며 하천 주변, 경작지, 초지, 산림 지역 등 다양한 곳에 서식을 한다. 먹이는 개구리류나 설치류 등을 잡아먹고 생활을 하며 낮에 많이 활동을 한다. 짝짓기는 보통 9~10월경에 이루어지며, 이듬해 6~7월경에 덩굴 속이나 풀 속에 10~3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약 40 mm × 25

mm 정도의 타원형이며, 부화 기간은 30~40일 정도 소요된다. 과거에는 독이 없는 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이 종은 머리 뒤쪽으로 독니를 가지고 있으며, 위협을 느낄 경우 몸을 세우고 방어 자세를 취하거나 죽은 척하는 습성이 있다.

서식지: 하천, 경작지, 초지, 산림 지역 등 다양하다.

분포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분포지역: 계룡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가리산, 가제산, 가지산, 구룡산, 구절산, 금성산, 금오산, 금정산, 기대산, 기룡산, 내동산, 노고단, 능화오름, 달마산, 대룡산, 대봉산, 도고산, 도솔봉, 모후산, 무등산, 무척산, 묵방산, 문복산, 문수산, 미송산, 바위산, 박봉산, 반야봉, 방어산, 백련산, 백마산, 백병산, 백봉, 백야산, 백암산, 백운산, 병풍산, 보배산, 삼방산, 성널오름, 성주산, 소백산, 소뿔산, 소학산, 속리산, 송악산, 여귀산, 여분산, 여항산, 연화산, 영구산, 영암산, 영인산, 영취산, 운길산, 운암산, 운악산, 운주산, 응석봉, 유학산, 응봉산, 의상봉, 이명산, 인덕산, 일성산, 입석산, 접산, 정병산, 정죽산, 제암산, 조항산, 존재산, 종계산, 주발산, 주왕산, 주작산, 죽령산, 죽림산, 집현산, 천등산, 천마산, 천왕봉, 천운산, 천제봉, 천황산, 청옥산, 태백산, 태형산, 태화산, 토곡산, 풍악산, 함라산, 허굴산, 형제봉, 화학산, 황새봉, 황야산, 황철봉, 황학산, 희리산, 흰바우산 등

13) *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 (Canter 1842)

능구렁이

생태: 능구렁이는 주로 야산, 경작지 등에서 많이 발견되며, 논 주변이나 습한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낮 보다는 야간에 많이 활동하는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가끔씩 관찰된다. 특히 이러한 습성 때문에 야간에 차량에 의해 치어 죽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10월 중순에 동면을 하고 이듬해 4월경부터 활동한다. 알은 대략 10개 정도 산란하고 약간 추운 곳에서도 활동한다. 주요 먹이는 개구리, 쥐, 작은 새, 다른 종류의 뱀, 작은 어류 등을 잡아먹고 난생을 한다 (Nakamura and Uéno 1976; 千石正一 1979).

서식지: 농경지, 경작지, 민가 주변, 야산 등

분포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분포지역: 계룡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제산, 가학산, 개위산,

계당산, 광덕산, 구룡산, 금강산, 금오산, 기대산, 까치산, 노고단, 달마산, 대덕봉, 대룡산, 대운산, 대청봉, 도고산, 동달산, 두봉산, 두원봉, 만대산, 명선봉, 모후산, 목방산, 미송산, 반야봉, 방어산, 백덕산, 백련산, 백룡산, 백마산, 백병산, 백암산, 백운산, 병풍산, 보배산, 봉황산, 불모산, 비계산, 비룡산, 비봉산, 사갓봉, 삼방산, 삼예봉, 상두산, 성주산, 솟대봉, 신어산, 아구산, 여귀산, 여항산, 연화산, 영구산, 영인산, 영취산, 오봉산, 오서산, 오음산, 옥녀봉, 옥산, 왕등재, 용두산, 운길산, 운람산, 운악산, 운주산, 응석봉, 월명산, 유학산, 의상봉, 이명산, 작대산, 장재산, 저굴산, 제암산, 조항산, 존제산, 종석대, 주작산, 죽령산, 지력산, 천등산, 천왕봉, 천운산, 첨찰산, 청옥산, 추월산, 치술령, 칠갑산, 허굴산, 형제봉, 화학산, 황철봉, 희리산 등

14) *Coluber spinalis* (Peters 1866) 실뱀

생태: 4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하며, 주로 물가 근처, 초지 부근에서 관찰된다. 7월경에 약 10여 개 내외의 알을 산란하고 알의 크기는 38 mm × 11 mm 정도이다. 먹이는 개구리, 도마뱀 등이고, 동면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중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초지에 서식하면서 개구리, 곤충류 장지뱀류 등을 포식한다(원 1971; Ji *et al.* 1987).

서식지: 저지대 초지, 농경지, 하천 주변 등

분포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중부지역보다는 남부 지역에 다수의 개체가 서식한다.

분포지역: 지리산국립공원, 가리산, 금오산, 만대산, 미송산, 불모산, 비계산, 비룡산, 비봉산, 석고산, 소학산, 시오름, 신어산, 오봉산, 오음산, 왕두산, 유학산, 응봉산, 인덕산, 작약산, 접산, 첨찰산 등

15) *Elaphe schrenckii schrenckii* (Strauch 1873) 먹구렁이

생태: 산림지역, 경작지, 물가, 인가 주변에서 서식을 하며, 쥐, 새, 새알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7월에서 8월경에 6~21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40~60 mm × 28~30 mm 정도이다. 알이 무게는 18~28 g 정도이며, 부화기간은 45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된다. 갓 태어난 개체는 270~350 mm 정도이고 무게는 8~18 g 정도이다(Zhao 1998).

서식지: 산림지역, 경작지, 물가, 인가 주변

분포현황: 강원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한다(Shannon 1956).季와 溫(1997)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구렁이를 아종관계(*E. s. schrenckii*와 *E. s. anomala*)나 각각의 독립 종(*E. schrenckii*와 *E. anomala*)으로 인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종(구렁이, *E. schrenckii*)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의 분포도에는 먹구렁이(*E. s. schrenckii*)와 황구

렁이(*E. s. anomala*)의 분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분포지역: 설악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가리산, 대룡산, 바위산, 백마산, 백암산, 영취산, 오음산, 운악산, 의상봉, 종지봉, 칠갑산 등

16) *Elaphe schrenckii anomala* (Boulenger 1916)

황구렁이

생태: 생활은 주로 평원, 구룡, 산림지역, 물가, 인가 주변에서 관찰되고, 쥐, 새, 새알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알은 7~8월경에 6~17개 정도의 알을 낳고 부화기간은 40일 전후이다. 갓 태어난 개체의 크기는 약 300 mm 정도이고 무게는 13~19 g 정도이다(Zhao 1998).

서식지: 주로 평원, 구룡, 산림지역, 물가, 인가 등

17) *Amphiesma vibakari ruthveni* (Van Denburgh 1923)

대륙유혈목이

생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 매우 작은 편으로 보통 400~700 mm 정도이며, 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순한 편이다. 물가나 작은 연못 주변에서 많이 서식하고 저녁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도 잘 활동한다. 헤엄을 잘 치는 편이고,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파충류에 비하여 건조함과 추위에 약한 편이다. 먹이로는 개구리, 올챙이, 어류 등이 있다. 7~8월에 2개에서 10개 정도의 알을 낳고, 동면은 10월 초부터 시작되고, 이듬해 5월부터 다시 활동한다.

서식지: 물가, 산기슭 등

분포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많은 편이다.

분포지역: 내장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가리산, 계당산, 곰봉, 구룡산, 기대산, 노고단, 능화오름, 달마산, 대룡산, 대봉산, 두봉산, 명선봉, 방어산, 백련산, 백룡산, 백병산, 백암산, 비룡산, 성널오름, 시오름, 신선봉, 아구산, 어승생악, 연화산, 왕두산, 용두산, 운람산, 운악산, 응봉산, 의상봉, 일성산, 장재산, 주산, 천운산, 화채봉, 화학산 등

18) *Sibynophis chinensis* (Günther 1889) 비바리뱀

생태: 비바리뱀이 관찰되는 시기는 5~10월이며, 특히 5~7월 초순경에 관찰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한라산 식생의 수직분포로 볼 때 초지대(해발 600 m 이하의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방목지나 목장으로 이용된 지역이다. 주요 먹이원은 도마뱀류로 알려져 왔으며, 비바리뱀 발견지역의 식생은 참억새, 띠, 솔새, 개솔새, 진디 등의 초본식물과 청미래덩굴, 짚레꽃, 보리수나무, 국수나무 등의 관목들이 대표적으로 출현하고 있

다(김과 오 2005).

서식지: 초지대

분포현황: 제주도

분포지역: 아라동, 송악산, 수망리, 제주종합운동장, 거문오름, 고성리 등

19) *Gloydus brevicaudus* (Stejneger 1907) 살모사

생태: 살모사는 주로 평지나 구릉 등지에서 많이 관찰되며, 이러한 서식환경에서 동면한다. 4월부터 활동하는 개체가 관찰되며, 10월 중순이면 동면에 들어간다. 낮과 밤에 모두 활동을 하며, 물고기, 개구리, 도마뱀, 뱀 등을 포식하면서 생활한다. 또한,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기는 5~6월과 10월이다. 이들은 난태생이며, 5월에서 9월 사이에 짝짓기를 하고, 8월~9월경에 2~2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갓 태어난 개체의 크기는 140~170 mm 정도이다(Ji *et al.* 1987; Zhao 1998).

서식지: 평지, 논두렁, 초지, 구릉 등

분포현황: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분포지역: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가계산, 갈라산, 갑악봉, 갑산, 개위산, 계당산, 고현산, 곤방산, 광덕산, 구룡산, 국수봉, 금오산, 기대산, 노고단, 달마봉, 달마산, 대덕봉, 대룡산, 도고산, 도명산, 도솔봉, 무등산, 무릉리, 목방산, 미송산, 바위산, 반야봉, 방동리, 방어산, 백덕산, 백련산, 백룡산, 백마산, 백명산, 백아산, 백운산, 병풍산, 보해산, 봉황산, 불모산, 불태산, 비계산, 비룡산, 삼방산, 상두산, 상황봉, 석고산, 소학산, 송학산, 쇠치봉, 신선봉, 신어산, 아구산, 여분산, 여항산, 연화산, 영암산, 영인산, 영취산, 오봉산, 오음산, 옥산, 왕두산, 왕등재, 용계산, 용두산, 운길산, 운암산, 운악산, 응석봉, 원효산, 월각산, 월명산, 유학산, 응봉산, 의상봉, 인덕산, 일성산, 작대산, 장군봉, 장재산, 저굴산, 접산, 정병산, 정족산, 제암산, 존재산, 종석대, 종지봉, 좌구산, 주왕산, 주작산, 죽령산, 죽림산, 차일봉, 천등산, 천마산, 천왕봉, 천운산, 천제봉, 청옥산, 추월산, 칠갑산, 칠절봉, 태백산, 풍악산, 허굴산, 화학산, 황철봉, 흰바우산 등

20) *Gloydus ussuriensis* (Emelianov 1929) 쇠살모사

생태: 주로 경작지, 낮은 산지, 산림지역 등에서 많이 발견되고, 돌 밑에 숨어 있는 개체를 목격할 수 있다. 동면은 10월 초부터 이듬해 5월 중순까지이고, 개구리, 지네, 물고기, 도마뱀, 뱀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난태생이며, 보통 8~9월경에 새끼를 낳고 한번에 2~10개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 갓 태어난 새끼의 크기는 보통 172~216 mm 정도이다(Ji *et al.* 1987; Zhao 1998).

서식지: 경작지, 낮은 산지, 산림지역 등

분포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분포지역: 계룡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가리산, 구룡산, 구룡산, 국수봉, 금성산, 금오산, 기대산, 노고단, 능화오름, 달마산, 대덕봉, 대룡산, 대청봉, 도고산, 도명산, 도솔봉, 두봉산, 동주리봉, 마산, 만대산, 모후산, 무등산, 무척산, 목방산, 문수산, 미동산, 미송산, 바위산, 박봉산, 반야봉, 방어산, 백련산, 백룡산, 백마산, 백명산, 백우산, 백운산, 불모산, 비계산, 비룡산, 사갓봉, 상두산, 상황봉, 성널오름, 성주산, 소학산, 속리산, 솟대봉, 쇠치봉, 수리산, 시오름, 신어산, 아구산, 어승생악, 여분산, 여항산, 연화산, 영구산, 영취산, 오도산, 오음산, 운길산, 운악산, 울련산, 응석봉, 원효산, 유학산, 응봉산, 의상봉, 이명산, 인덕산, 일성산, 작대산, 장재산, 저굴산, 적자봉, 정병산, 제암산, 조항산, 존재산, 종계산, 주왕산, 주작산, 죽령산, 죽림산, 지력산, 천등산, 천운산, 천제봉, 천축산, 첨찰산, 청옥산, 청옥산, 치술령, 치악산, 칠갑산, 태백산, 태화산, 화채봉, 화학산, 황아산, 황철봉, 황학산, 회양산, 흰바우산 등

21) *Gloydus saxatilis* (Emelianov 1937) 까치살모사

생태: 산림이 울창한 지역, 산간계류 주변에서 주로 서식하고 설치류 등을 잡아먹으며 생활한다. 주로 4~5월 그리고 9~10월 경에 많이 활동한다. 또한 10월 하순에 동면에 들어간다. 새끼는 한번에 3~8마리 정도 낳고 갓 태어난 새끼는 198~238 mm 정도이다(Zhao 1998).

서식지: 산림

분포현황: 제주도 등 일부 섬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분포지역: 봉두리, 불모산, 삼방산, 석고산, 신대리, 신어산, 용두산, 월명산, 정병산, 종지봉, 죽령산, 청암면, 화채봉, 치악산, 칠갑산, 태백산, 태형산, 화학산, 고현산, 광덕산, 두원봉, 목방산, 백련산, 작대산, 제암산, 종석대, 지리산, 청옥산, 영취산, 오대산, 오음산, 왕두산, 월명산, 월악산, 유학산, 응봉산, 의상봉, 비계산, 설악산, 소뿔산, 속리산, 아구산, 명선봉, 목방산, 미송산, 바위산, 반야봉, 방동리, 방어산, 백명산, 백운산, 남태봉, 대덕봉, 대룡산, 대청봉, 도명산, 두봉산, 가리산, 갑악봉, 광원리, 구룡산 등

고 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도마뱀류는 도마뱀(*Scincella lat-*

erale laterale) 1종으로 알려졌으나, Chen *et al.* (2001)의 연구결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은 북도마뱀 (*Scincella huanrenensis*)과 미끈도마뱀 (*Scincella vandenburghi*)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각종 조사사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포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장 등(2006b)의 결과에서 이 2종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나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지점이 적기 때문에 2종의 전국분포현황을 정확히 대변하기 어렵고, 단지 채집지역에 대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장지뱀 속 (Genus *Takydromus*)에 대한 분류학적 논쟁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Doi (1919)가 관악장지뱀을 신종으로 발표한 이후에 Walley (1958a), Arnold (1997)는 관악장지뱀이 아무르장지뱀의 동종이명으로 처리하였고, Doi (1929)에 의해 신종으로 발표된 장지뱀도 Walley (1962), Arnold (1997) 등에 의해 아무르장지뱀의 동종이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Walley (1958b)에 의해 발표된 울디장지뱀의 경우, Arnold (1997)에 의해 일본에 분포하는 *Takydromus tachydromoides*의 동종이명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종 (*T. tachydromoides*)이 한반도에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뱀 속 (Genus *Elaphe*)의 경우도 많은 논쟁이 있다. 백 (1982)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자치 (*E. rufodorsata*)의 주 서식지가 수변지역 (논, 웅덩이, 습지, 하천변 등)이고 난태생을 하며 비늘 형태의 차이로 뱀 속 (*Elaphe*)에서 물뱀 속 (*Enhydryis*)으로 속명을 변경하였으나, Szyndlar and O (1987)는 백 (1982)이 무자치의 내부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고 이 종을 물뱀 속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희목이의 경우, 원 (1971), 강과 윤 (1975)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유희목이를 *Rhabdophis tigrinus lateralis*로 분류하였으나 (이 종은 과거에 *Natrix* 속으로 분류하였음), Nakamura and Uéno (1976), 백 (1982) 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뱀의 길이와 비늘 수가 증가하는 구배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 *Rhabdophis t. lateralis*를 *Rhabdophis t. tigrinus*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강과 윤 (1975)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구렁이를 *Elaphe schrenckii*로 기록하고 있으나, Pope (1935)와 Zhao and Adler (1993)는 구렁이를 2개의 아종 (*Elaphe s. schrenckii*와 *Elaphe s. anomala*)으로 구분하였으며季와 溫 (1997)은 두 아종을 서로 별종으로 취급하여 *Elaphe schrenckii*와 *Elaphe anomala*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까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여러 연구 기

관에서 구렁이를 단일종으로 인식하여 현황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종 (또는 아종)의 분포를 명확히 구분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비바리뱀의 경우 백 (1984)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고, *S. collaris*로 동정하였으나, 김과 오 (2005)는 Pope (1935), Smith (1943), Zhao (1987), Zhao and Yang (1997)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종이 *S. collaris*가 아닌 *S. chinensis*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Kim and Oh (2006)의 분류학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S. collaris*를 *S. chinensis*로 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살모사 3종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은 형태적 유사성 때문에 북미 지역에 분포하는 *Agkistrodon*과 같은 속으로 분류하였으나 Kraus *et al.* (1996), Orlov and Barabanov (1999)은 분류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살모사류에 대한 계통연구를 통하여 *Agkistrodon* 속이 측계통군인 것으로 확인하고 동아시아 집단을 *Agkistrodon* 속에서 *Gloydius* 속으로 변경하였다 (Hoge and Romano-Hoge 1981).

적 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상과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 개인 조사결과 등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는 총 2목 7과 21종으로 확인되었다 (장수거북, 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바다뱀, 얼룩바다뱀, 멧대가리바다뱀 등 해양 파충류 제외). 또한 분류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도마뱀류, 장지뱀류, 뱀류에 대한 분류학적 고찰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해양파충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을 판단된다.

사 사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와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중앙서·파충류 분야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귀중한 사진 자료를 제공해주신 제주대학교 김병수, 장민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강영선, 윤일병. 1975. 한국동식물도감 제17권 동물편. 양서·파충류. 문교부. 191pp.

- 국립수산진흥원. 1998. 자라양식. 수산기술지. 38:4.
- 김병수, 오홍식. 2005. 제주산 비바리뱀 (*Sibynophis collaris* Gray)의 분포와 서식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9(4):342-347.
- 백남극, 심재한. 1999. 뱀, 다리없는 동물 그 진화의 수수께끼. 지성사. 197pp.
- 백남극. 1982. 한국산 사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남극. 1984. 한국산 미기록 사류 1종에 관한 보고. 강릉대학교 논문집. 7:527-529.
- 심재한. 2001. 꿈꾸는 푸른 생명 거북과 뱀. 다른세상. 280pp.
- 원홍구. 1971. 조선양서파충류지. 과학원출판사. 170pp.
- 이종남, 우용태, 강승구, 이인섭. 1999. 한국산 도마뱀붙이 *Gekko japonicus*에 대하여. 경성대학교부설기초과학연구소.
- 장민호, 송재영, 오홍식, 정규희. 2006a. 한국산 장지뱀속(유린목: 장지뱀과)의 분류학적 고찰. 환경생물. 24:95-101.
- 장민호, 송재영, 이종남, 오홍식. 2006b. 한국산 도마뱀붙이의 현황. 한국환경생태학회. 20:352-358.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6.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국립환경과학원. 298pp.
- 季达明, 温世生. 1997. 赤峰锦蛇 *Elaphe anomala* 爲一效种. 动物分类学报. 22(4):436-440.
- 千石正一, 1979 原色 兩生・爬蟲類. 家の光協會. 東京.
- Arnold EN. 1997. Interrelationships and evolution of the East Asian grass lizards *Takydromus* (Squamata: Lacertidae). Zool. J. Linn. Soc. 119:267-296.
- Chen SL, T Hikida, SH Han, JH Shim, HS Oh and H Ota. 2001. Taxonomic status of the Korean populations of the genus *Scincella* (Squamata: Scincidae). J. Herpetol. 35:122-129.
- Doi H. 1919. *Takydromus kwangakuensis* sp. nov. from Korea. Chosen Iho. 1920:70-75.
- Doi H. 1929. A new species of *Takydromus* from Corea. Chosen Nat. His. Soc. 9:17-19.
- Hoge AR and SA Romano-Hoge. 1981. Poisonous snakes of the world. Part I. Check list of the pit vipers: Viperioidea, Viperidae, Crotalinae. Mem. Inst. Butantan 42/43:179-310.
- Ji DM, MY Liu, ZJ Liu, YF Zhou, KC Huang, SS Wen and BZ Zou. 1987. Fauna Liaoningca. Amphibia, Reptilia. Liaoning Sci. Technol. Press. Shenyang.
- Kim BS and HS Oh. 2006. A Taxonomic reinvestigation of the Collared Many toothed snake *Sibynophis collaris* Gray (Reptiles: Serpentes: Colubridae) from Jeju Island, Korea. Integr. Biosci. 10:121-123.
- Kraus F, DG Mink and WM Brown. 1996. Crotaline intergeneric relationships based on mitochondrial DNA sequence data. Copeia. 1996:763-773.
- Nakamura K and SI Uéno. 1976. Japanese Reptiles and Amphibians in Colour. Hoikusha, Kyoto.
- Orlov NL and AV Barabanov. 1999. Analysis of nomenclature, class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Agkistrodon halys*-*Agkistrodon intermedius* complexes: a critical review. Russian Journal of Herpetology. 6:167-192.
- Paik NK, HY Lee and EK Jung. 1990. Heteroplasmy in mitochondrial DNA of Chinese viper, *Agkistrodon blomhoffii brevicaudus*. Koran J. Genet. 12:331-336.
- Paik NK, HY Lee, EK Jung and IS Kim. 1992. Genetic differentiation of mitochondrial DNA in the genera, *Enhydryis* and *Elaphe*. Korean J. Genet. 14:89-98.
- Pope C. 1935. The reptiles of China. Turtles, Crocodilians, Snakes, Lizards. Aner. Mus. Nat. Hist., New York.
- Shannon FA. 1956. The reptiles and amphibians of Korea. Herpetologica. 12:22-49.
- Slevin JR. 1925. Contributions to oriental herpetology II. Korea or Chosen. Cal. Acad. Sci. 115:89-100.
- Smith MA. 1943. Reptilia and Amphibia. III-Serpentes. In the fauna of British India Ceylon and Burma, including the whole of the Indo-Chinese Sub-Region. London.
- Stejneger L. 1907. Herpetology of Japan and adjacent territory. U.S. Nat. Mus. 58-577.
- Strauch A. 1873. Die Schlangen des Russischen Reichs, in systematischer und zoogeographischer Beziehung. Men. Acad. Imp. Sci. 21:1-287.
- Szyndlar Z and HD O. 1987. Reptil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t I. Serpentes. Chinese Herpeol. Res. 22-59.
- Walley HD. 1958a. The status of *Takydromus kwangakuensis*. Copeia. 1958:338-339.
- Walley HD. 1958b. A new lacertid lizard from Korea. Herpetologica. 14:203-205.
- Walley HD. 1962. The identity of Korea lizard, *Takydromus auroralis* Doi. Herpetologica. 18:215-216.
- Zhao E and D Yang. 1997. Amphibians and reptiles of the Hengduan Mountains regions. The Comprehensive Scientific Expedition to the Qinghai-Xizang Plateau, Chinese Academy of Science.
- Zhao E, K Zhao and K Zhou. 1999. Fauna Sinica Reptilia Vol. 2 Squamata Lacertilia. Editional Committe of Fauna Sinica, Academia Sinica. Science Press, Beijing. 394pp.
- Zhao E. 1987. A Taxonomic study on Chinese species of the genus *Sibynophis*. Chinese. Herpetol. Res. pp. 1-6.
- Zhao EM and K Adler. 1993. Herpetology of China. Soc. Stud. Amphibi. Rept, Oxford.
- Zhao EM. 1998. China red data book of endangered animals, amphibia and reptilia. Endangered species scientific commission, P.R.C., Science press.

Manuscript Received: February 28,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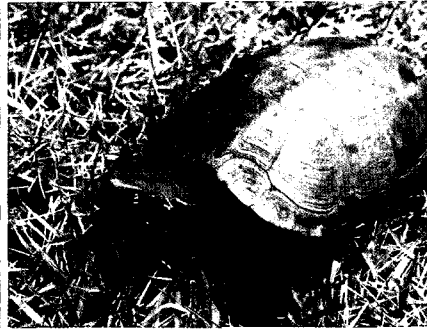
Revision Accepted: May 7, 2007

Responsible Editor: Myung Chan Gye

Appendix 1. Pictures of reptiles inhabiting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marine spe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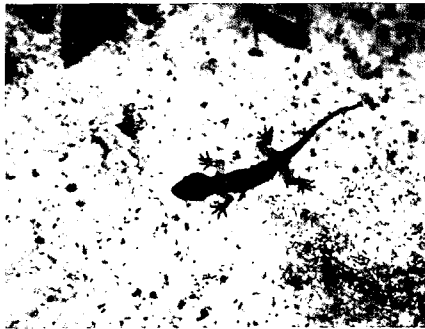
Pelodiscus sinensis



Chinemys reevesii



Trachemys scripta eleg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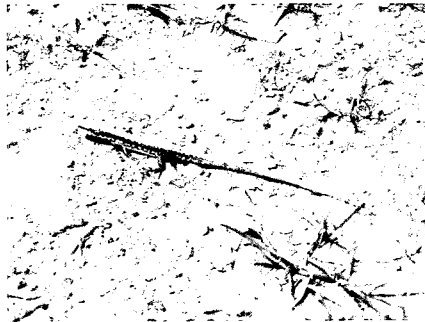
Gekko japoni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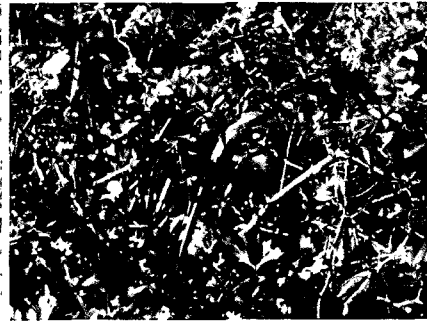
Scincella vandenburg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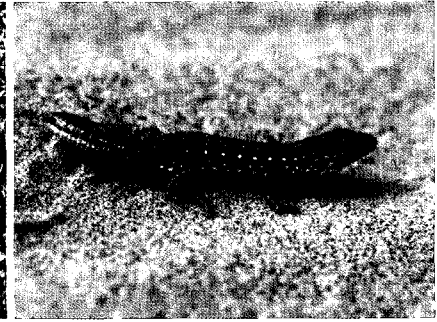
Scincella huanrenensis



Takydromus amurensis



Takydromus wolteri



Eremias argus



Elaphe rufodors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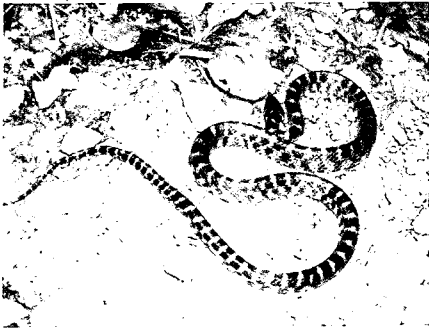


Elaphe di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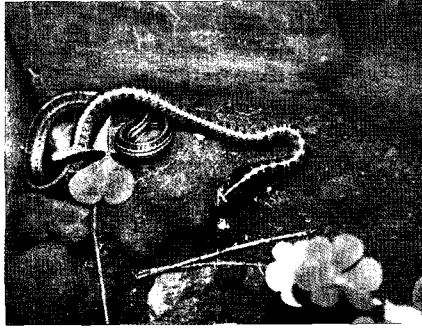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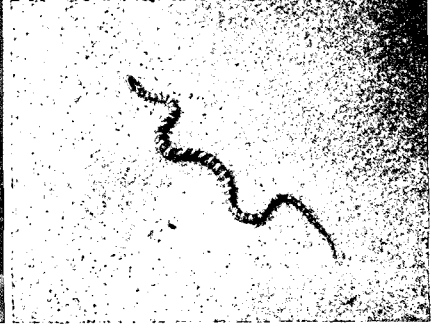
Appendix 1. Continued.



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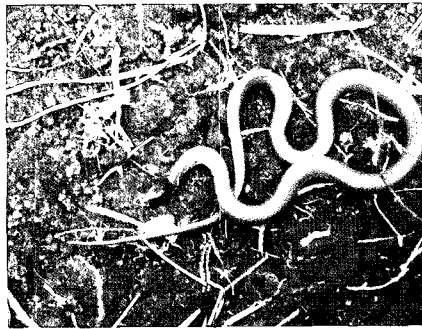
Coluber spina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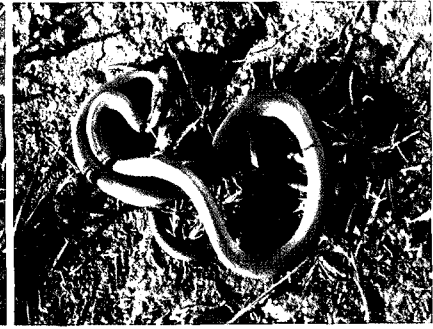
Elaphe schrenckii schrenckii



Elaphe schrenckii anomala



Amphiesma vibakari ruthveni



Sibynophis chinensis



Gloydus brevicaudus



Gloydus ussurien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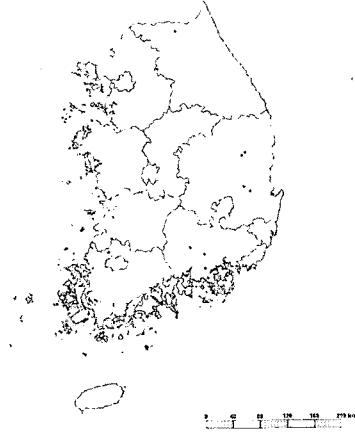


Gloydus saxatilis

Appendix 2. Distribution map of reptiles inhabiting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marine species)



Pelodiscus sinensis



Chinemys reevesii



Trachemys scripta elegans



Gekko japonicus



Scincella vandenburg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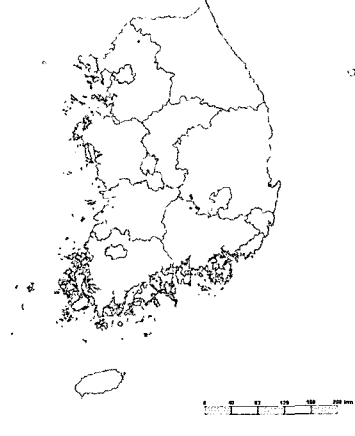
Scincella huanrenensis



Takydromus amurensis



Takydromus wolt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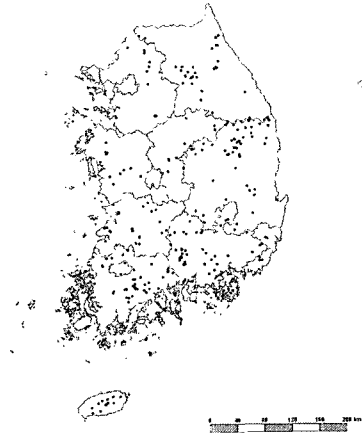


Eremias arg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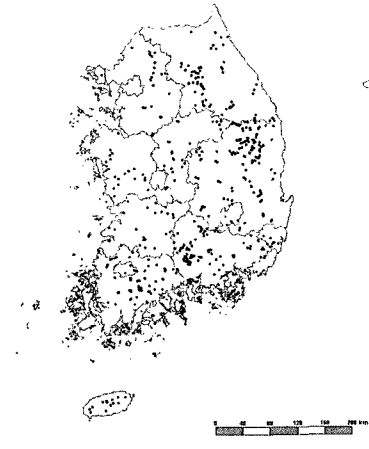
Appendix 2. Continued.



Elaphe rufodors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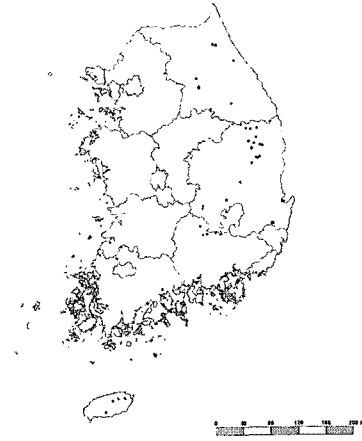
Elaphe di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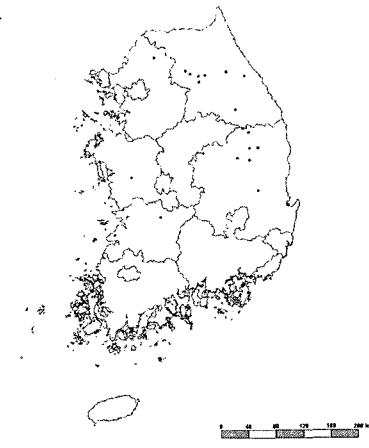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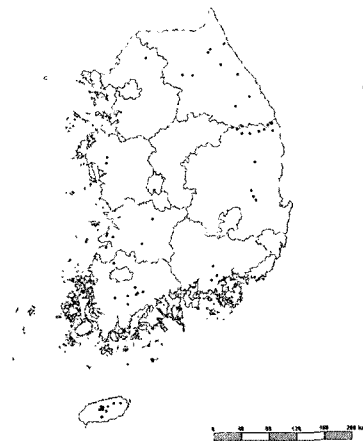
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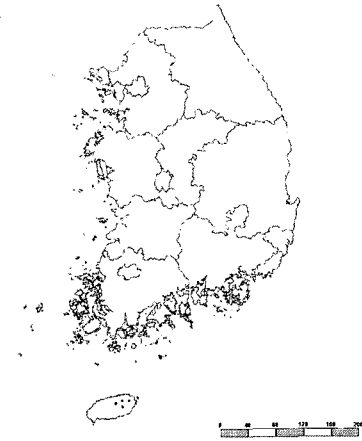
Coluber spina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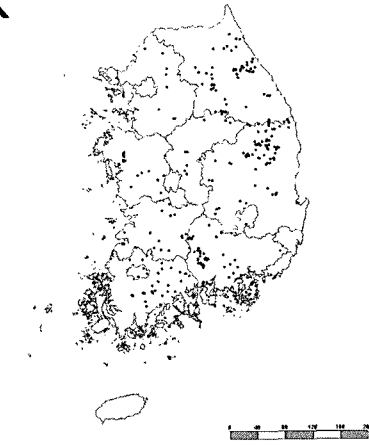
Elaphe schrenckii



Amphiesma vibakari ruthve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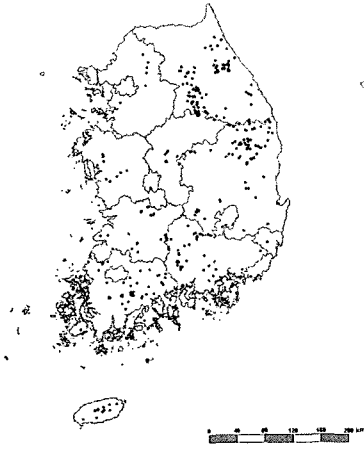


Sibynophis chinen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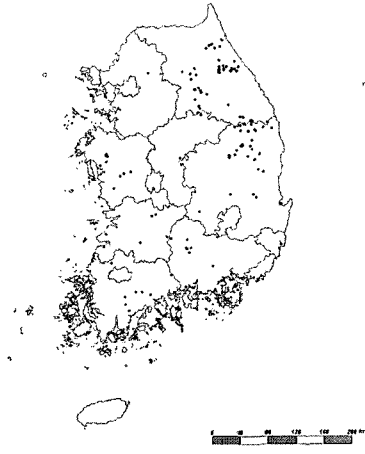


Gloydus brevicaudus

Appendix 2. Continued.



Gloydius ussuriensis



Gloydius saxatilis